

클래식 강국으로 가는 길. 콩쿠르와 그 이후

임지영(바이올린, 1995년 생)의 벨기에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소식이 올 여름을 달구더니 며칠 안 가 이탈리아에서 문지영(피아노, 1995년 생)의 부소니 콩쿠르 입상 소식이 날아왔다. 그리고 조성진(1994년 생)이 폴란드 쇼팽 콩쿠르에 입상하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세계 3대 콩쿠르에 속하는 퀸엘리자베스, 쇼팽, 차이콥스키 콩쿠르 중 한 해 동안 두 개를 석권한 셈이니,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인 2215년에 서양음악사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2015년은 한국연주자들이 유럽의 주요 콩쿠르를 휩쓴 해였다.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임지영, 부소니 콩쿠르의 문지영, 그리고 쇼팽 콩쿠르의 조성진. 한국은 더 이상 클래식 음악의 변방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국이 되었다.”

지금 추세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내년 2월에 조성진이 출연하는 콘서트의 티켓은 오픈한지 50분 만에 2500석이 매진되었다고 하니, 이제 피아노 학원들이 너도나도 ‘조성진 피아노 학원’이라는 간판을 다는 일만 남았다.

▶ 콩쿠르, 정치적이거나 인간적인 음악의 장

스물 한 살의 조성진이 2015년의 한국을 뜨겁게 달구었다면, 1974년의 한국을 뜨겁게 달군 스물 한 살의 청년이 있었다. 현재 서울시향 예술감독 정명훈이다. 그는 1974년 러시아에서 개최된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입상하며 한국을 ‘신나는 쇼크’ 상태로 몰아넣었다. 귀국한 그를 위해 김포공항에서 서울시청까지 카퍼레이드가 벌어졌다. 당시 정명훈은 러시아 본국의 스타니슬라프 이고린스키와 공동 2위를 했다. 2011년 피아노 부문에선 손열음이 2위에 입상했고, 조성진이 3위에 입상했었다.

지금이야 한국의 인지도가 여러 모로 높아졌지만 1960·7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 어디를 가든 무명국 출신의 서러움을 온 몸으로 체감해야 했다. 인종·성적 차별은 물론이고 무명국 출신 등 모든 점이 악조건으로 작용했다. 지금도 세계 콩쿠르 현장을 가보면 자국의 음악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늘 있



는데, 특히 ‘1위없는 2위’, ‘1위없는 3위’, ‘공동우승’ 등의 입상 타이틀은 ‘1위’를 자국의 청년에게 주지 못했을 때 붙는 타이틀인 경우도 있다. 사실 과거에는 콩쿠르의 입상은 커녕 참가조차도 힘든 경우가 많았다. 차이콥스키 콩쿠르만 보더라도 정명훈의 누나 정명화(첼리스트)가 1962년에, 또 다른 누나인 정경화(바이올리니스트)가 1966년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참가하지 못했다. 출전 당시 정명훈은 미국 국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국적으로 적국인 소련에 가기가 힘들었기에 부득이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는 1967년 독일 레벤트리서 콩쿠르에 핀커스 주커만과 공동우승하면서 세계적 연주자로 급부상했다. 동양에서 온, 그것도 무명국 출신의 10대 소녀에게 상이 돌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당시 콩쿠르의 심사위원장이자 세계음악계를 주름 잡던 유대인음악가들의 대부분이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톤(1920~2001)은 정경화에게 한참 뒤져있던 핀커스 주커만에게 공동우승을 안기느라 비난을 받는 것도 감수했다고 한다.

음악가로서의 가능성을 시험치는 콩쿠르 참가자의 최종 목표는 입상이다. 그런데, 입상이 아니어도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될 때도 있다. ‘건반 위의 구도자’이자 영화배우 윤정희의 남편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그렇다. 백건우가 15세 때 미국의 드리트리 미트로폴리스 콩쿠르에 참가했을 때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습하고 있는 그를 유심히 지켜본 한 남자가 콩쿠르 주최 측에 “백건우를 돌봐주세요”라고 부탁한다. 그가 내비친 관심 덕분에 백건우에게 명문 줄리어드 음악원의 입학과 장학금은 물론이고 명교수 문하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 남자의 ‘말 한마디’로 백건우는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어린 소년의 운명과 공부 환경을 바꿔놓을 정도로 강한 입김을 지닌 그 남자는 당시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던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었다. 백건우도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는 25년이 지난 후, 당시 콩쿠르 주최자였던 한 나 색슨 여사와 식사를 나누다가 알게 되었다고 한다. 예전에 베를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 카라얀을 이 지면을 통째로 할애하여 소개한 적이 있

古典名句

신정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

07

개관사정



요즘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말을 많이들 한다. 프로야구를 보면 9회에 대역전극을 펼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승패가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던 팀이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여 승리를 가져간다면 그 말만큼 좋은 표현이 없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스토리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한다. 마지막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역시 그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 비슷한 고사성어가 있다. '개관사정(蓋棺事定)'이 그 말에 해당된다. 관의 뚜껑에다 못질을 하고나서 최종 결과를 따질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두보하면 당시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지만 그의 개인사는 전쟁으로 치닫는 국내 정치와 맞물려 불행하기 그지없었다.

두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친구의 아들 소혜(蘇溪)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시를 써주었다. 시는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라는 말로 소혜의 관심을 끈다. 이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광경을 제시한다. 집들의 오통나무가 시들다가 죽었다. 나무가 생명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나무의 재질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잘 가공하여 악기를 만들 수 있다.

소혜의 관심을 끈 다음에 두보는 “장부개관사시정(丈夫蓋棺事始定), 군금행미성노옹(君今幸未成老翁)”이라는 시구를 건넸다. “사내대장부는 관의 뚜껑을 덮어서 일이 비로소 마무리가 된다. 그대는 지금 다행히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았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 속에 따뜻한 마음씨가 전해진다. 소혜가 세상을 저주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아직 끝을 말할 계제가 아니라는 점을 넌지시 비추고 있다.

연말이면 아무래도 자연히 “한 해 동안 내가 뭘 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뾰족한 일이 없으면 허무해지기 쉽다. 2015년의 연말은 한 해의 연말이니 평생의 연말이 아니다. 언론은 한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고뇌하고 실의에 빠진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기사를 찾도록 힘써야겠다. 고통을 나누면 아픔이 줄어들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길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는데, 번스타인은 카라얀의 세기의 라이벌로 음악사를 장식한 인물이다.

▶ 북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콩쿠르 입상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리는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콩쿠르, 벨기에의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그리고 쇼팽 콩쿠르 중 한국인 최초의 입상자는 누구일까?

한국 전쟁 중인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러시아의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열린 교내 연주회. 동양에서 온 학생의 격정적인 연주가 끝나자 당시 차이콥스키 음악원 교수였던 바이올리니스트 다비트 오이스트라흐(1908~1974)는 직접 그를 가르치겠다고 나섰다. 오이스트라흐는 1937년 퀴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한 이였다. 이 거장이 거뒀던 이는 북한에서 특별 연구생으로 초청받아 온 바이올리니스트 백고산(1930~1997)이었다.

백고산은 1957년 제1회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유명세를 떨쳤다. 하지만 북한과 경쟁을 일삼던 남한에서 그의 수상소식을 접할 수는 없었다. 해방 전의 신문자료를 보면 백고산은 여섯 살 때인 1936년부터 평양, 경성, 동경을 오가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명성을 날렸다. '기자는 다음에 백군을 소개해야 어린 "천재"의 출현을 기다리는 동포 여러분에게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동아일보 1936년 7월 10일자) 그때나 지금이나 세간에 등장하는 천재는 만인에게 기쁨과 뿌듯함을 주나 보다. 백고산은 이후 평양음악무용대학 등에 재직했고, 차이콥스키 콩쿠르의 바이올린 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 사라진 천재가 더 많다

과거의 선배들이 '입상'으로만 그쳤던 콩쿠르에서 오늘의 젊은 음악가들은 '우승'의 타이틀을 따오고 있다. 199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이 개원한 이후에는 '토종'이라는 단어도 생겼다. 어린 시절부터 해외 유학을 통하여 음악적 자양분을 흡수한 윗세대와 달리, 국내 교육만으로도 해외 콩쿠르에서 승부를 내고 있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콩쿠르는 입상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예술가로서 무르익음의 과정을 걸어야 하며, 때로는 원치 않는 슬럼프와도 마주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성진과 같은 쇼팽 스페셜리스트의 '화려한 등장'에 뜨겁게 환호하기보다는 천천히, 강풍과 열풍보다는 미풍(微風)의 마음으로 그를 지켜봐야 한다. 국제 유수의 콩쿠르에 수많은 한국음악가들이 입상했지만 사실 세간의 '반짝 관심'과 이후의 '무관심'으로 사라져간 천재들도 많기 때문이다.